

IFS 국가 정책 제언 2024 한국 유권자 민주주의 인식 조사 결과

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임경훈 교수
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윤광일 교수
통일연구원 이상신 통일정책실장
서울대 국제대학원 한정훈 교수



1 민주주의 인식 조사 개요

- 서울대학교 민주주의 클러스터의 민주주의 인식 조사는 국내에서는 처음 체계적으로 실시된 것으로서, 국제기관들의 조사가 대부분 전문가 평가에 의존하고, 국내 여론조사가 주로 선거 승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차별화됨
- 특별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시기에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직접 대면조사의 방식을 취하였음

조사 개요

기업	내용
모집단	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
표집 틀	2024년 5월 기준 행정안전부 「주민등록인구현황」 자료에 근거하여 표집
표집 방법	2024년 5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, 지역/성/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
표본단위	총 1,003면
표본오차	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 오차는 $\pm 3.1\%p$
조사방법	대면면접조사 (PI: Personal Interview)
조사기간	2024년 7월 9일 ~ 8월 9일
조사기관	(주)한국리서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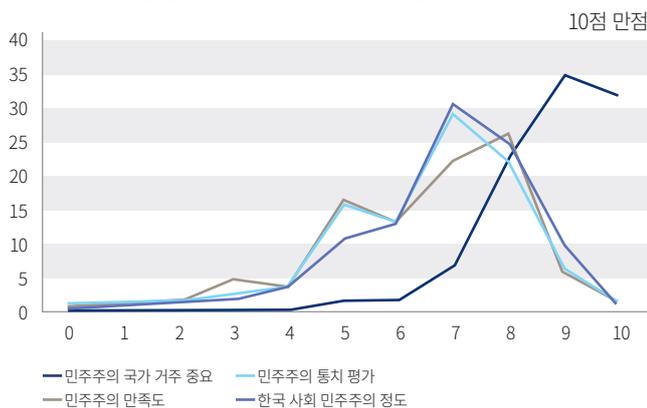
2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평가



-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절차와 가치의 차원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성과와 재분배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자유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 1순위로 채택됨
- 더불어,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훨씬 많으며(68.1%), 경제 불평등 축소와 정치적 자유 보장 중에서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 비율은 더 높음(75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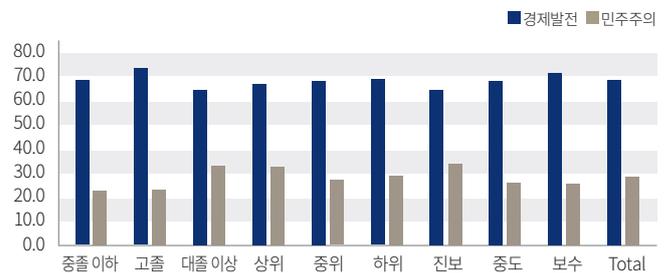
-응답자 대부분은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체제라는 점에 동의하고(83.3%)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인식(73.4%)하고 있는 등, 전반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70.3%의 만족도를 보임

현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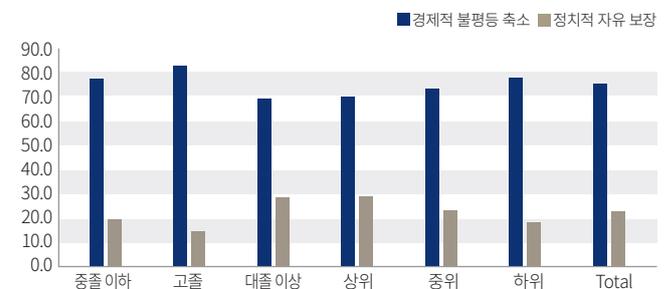
- 대체로 긍정적
-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이 특히 중요(M=8.84)
-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(M=6.43)
- 현재 한국 사회가 민주적이라는 평가(M=6.77)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평가보다 약간 높음(M=6.49)

‘경제발전’과 ‘민주주의’의 상대적 중요성



- 성과 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: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
- 학력, 소득,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

‘경제불평등 축소’와 ‘정치적 자유 보장’의 상대적 중요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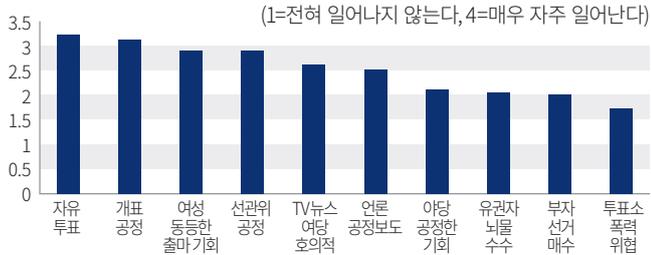
- 성과 중심의 민주주의 에 대한 이해: 경제적 불평등 축소가 정치적 자유 보장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
- 학력과 소득에 따른 차이

3 선거 경쟁, 자유와 평등, 공정성에 관한 인식

- 대부분의 응답자(전체 응답자 중 75%)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진다고 판단함
- 그러나 “유권자들이 뇌물을 받는다”라는 진술과 “부자들이 선거를 돈으로 매수한다”라는 질문에 동의한 응답자도 각각 26.8%와 24.2%에 이릅니다

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

“귀하는 다음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의 선거에 얼마나 자주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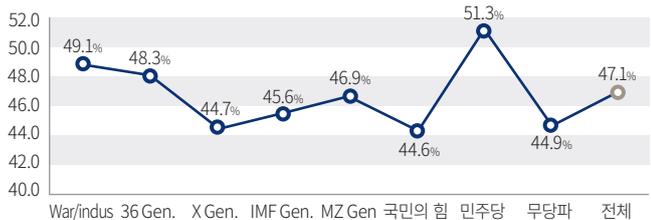


- 대체로 긍정적(2점 기준)
-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관위 공정성 논란에도 긍정적인 평가
- “야당 후보는 선거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”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임
- 응답자의 1/4 정도는 유권자가 뇌물을 받거나 부자가 돈으로 선거를 매수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추후 그 맥락에 대한 조사 필요

- 법치의 영역에서도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이 우리나라 법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. “정부 지도자들이 법을 어겼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”라는 진술에 47.2%, “대통령, 장관 등 행정부 구성원은 헌법을 존중한다”에는 46.2%가 동의함

법치에 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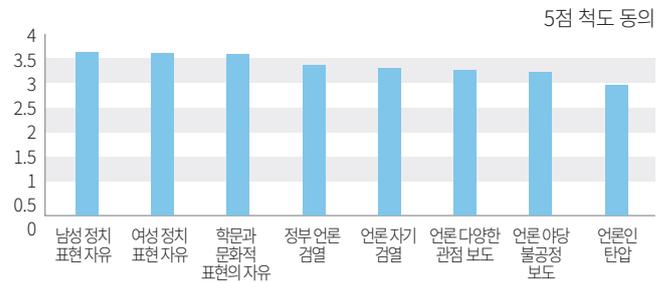
“정부 지도자들이 법을 어겼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”는 진술에 대한 동의



- 민주당 지지자의 동의비율이 국민의힘 보다 유의미하게 높음
- 세대별/성별/교육 수준별 차이 없음

- 언론 분야와 관련해서는 절반 정도의 유권자들이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, “선거에서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한다”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2.8%에 불과함

표현과 언론의 자유, 언론 공정성에 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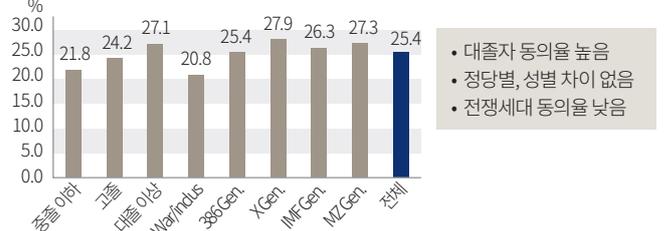


-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
- 학문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다양한 관점 보도도 긍정적으로 평가
- 다만, 정부의 언론 검열, 언론의 자기 검열, 야당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와 언론인 탄압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
- 올해 4월 발표된 IDEA 인식 조사 결과와 궤를 같이함: 한국과 미국은 표현의 자유 관련 전문가 조사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절반 정도의 국민 정도만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사회경제적 지위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일반 국민이 정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함

권력 배분에 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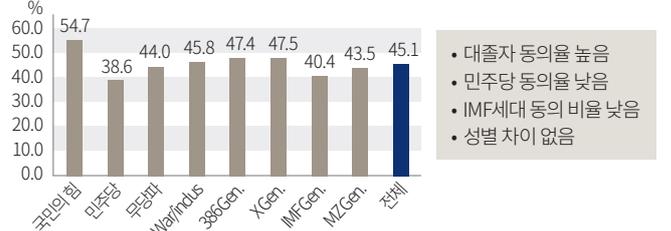
“권력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 없이 대등하게 분배되어 있다”는 진술에 대한 동의



- 대졸자 동의율 높음
- 정당별, 성별 차이 없음
- 전쟁세대 동의율 낮음

빈부 격차에 따른 차별 여부에 관한 인식

“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”는 진술에 대한 동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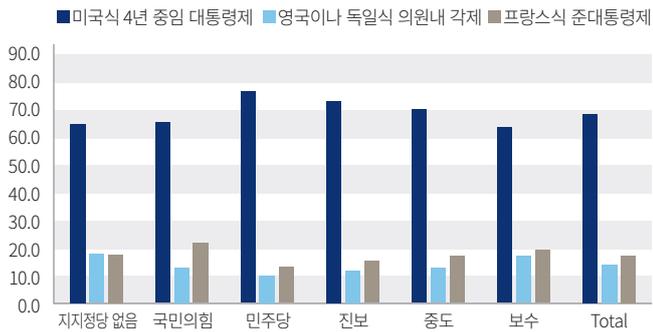


- 대졸자 동의율 높음
- 민주당 동의율 낮음
- IMF세대 동의율 낮음
- 성별 차이 없음

4 현행 및 대안적 정치제도에 대한 선호

-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변경하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54.7%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, 개헌을 할 경우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택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8.6%로 나타남
- 대통령 선거제도로 결선투표제(17.5%)보다 현행 상대다수제(82.5%)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음.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러한 유권자 선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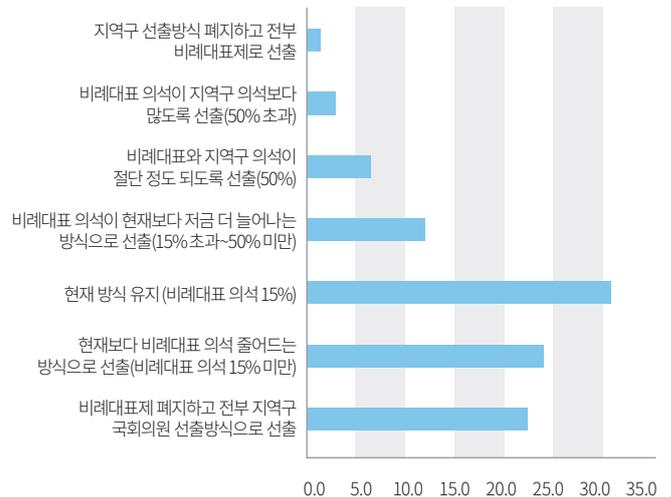
개헌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부형태



- 개헌이 이루어진다면, 압도적으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지지
- 민주당/진보층의 미국식 대통령제 선호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짐
- 대통령제(미국식 또는 프랑스식)을 지지하는 경우 현행 상대다수제 선호(82.5%)가 결선투표제(17.5%)보다 월등히 높음

-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임 (폐지, 축소, 현행 유지를 모두 합하여 77.3%)
- 일반 유권자들의 이러한 선호는 정치권이나 정치학자 등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짐

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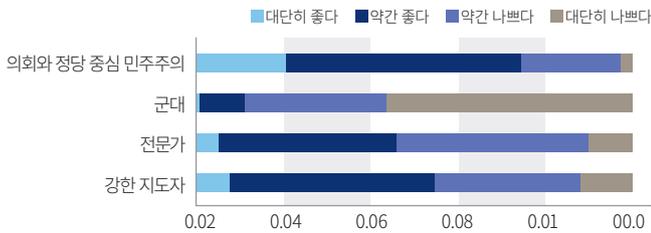
- 현행 선거제도의 비례대표 비율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
- 비례대표 축소 또는 폐지 선호가 증가 또는 지역구 선출 폐지 선호보다 월등히 높음



5 권위주의적 대안에 대한 잠재적 선호 여부

- 유권자들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(79.8%), 선출된 정치인의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, 일부 유권자들은 “민주주의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”(25.2%), “상황에 따라 독재가 더 나을 수 있다”(20.3%)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
- “의회와 정당에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것이 낫다”(54.7%)고 생각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임

[다양한 통치 방법에 대한 선호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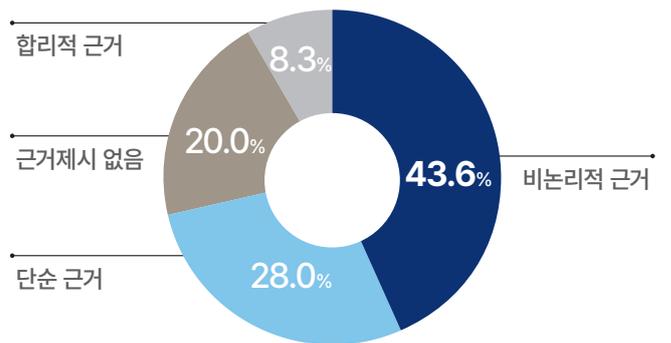


- 각 통치 방법에 대한 4점 척도 선호 측정
-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(74.4%) 군대 통치 선호가 매우 낮음(11.2%)
- 강한 지도자(54.7%)와 전문가 선호(46.0%)도 높은 편임

- 이미 World Value Survey와 International IDEA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낮아지는 대신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음
- 이런 성향의 유권자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해 주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

[정치인에 대한 평가]

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6 향후 조사 방향

-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관한 유권자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음
- 대체로 일반 국민은 전문가 집단보다 자국의 민주주의 상태에 대해 더 회의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음. 전문가 집단의 평가와 일반 시민의 인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,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개혁 방안이 정당성이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

- 향후 조사에서는 민주주의 운영에서 소외되고 각종 조사에서도 포착이 잘 안 되는 다양한 소수 집단에 더 접근할 필요가 있음. 일부 유권자들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스트롱맨 포퓰리즘과 연계될 가능성은 없을지 등에 관한 추적 관찰도 필요. 우리 국민의 인식 양태를 더 객관화하여 이해하는 한편, 민주주의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질(quality)을 실질적으로 높일 개혁 방안 모색이 절실함